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203-241
<https://doi.org/10.29212/mh.2024..133.20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증건과 운영 고찰

- 『제승당 고풍록(制勝堂 古風錄)』을 중심으로 -

김용재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 목 차
1. 머리말
 2. 한산도 제승당 증건과 성격
 3. 『제승당 고풍록』과 제승당 운영
 4. 맺음말

초 록 이 글은 18~19세기 한산도(閑山島) 제승당(制勝堂) 관련 자료를 추적한 글이다. 통제사 조경(趙敬)의 관력과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제승당을 증건한 사유를 추론했으며, 제승당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제승당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승당 고풍록』을 분석하여 방문자 및 헌성물품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제승당의 증건은 무신란(戊申亂) 때 이순신(李舜臣) 후손인 이봉상(李鳳祥)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환으로 증건하였다. 조경은 통제사로 부임하여 한산도를 찾아 제승당을 증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趙顯命)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둘째, 통제영 방문자들은 수조 훈련에 편승하여 제승당을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하였다. 그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꼭 가봐야 할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승당에 가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충성심과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쏘기도 하였다.

셋째, 제승당을 창건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고풍록(古風錄)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제승당 고풍록』에서 살펴본 제승당 방문자는 통제사와 수군 진장 또는 인근 고을의 지방관들이었다. 이들은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승당을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주제어 : 한산도, 제승당, 고풍록, 무신란, 조경

(원고투고일 : 2024. 9. 11.,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통영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도시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시 주둔했던 곳에 세운 제승당(制勝堂)이 있으며,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사망 후 민간에서 세운 최초의 사당인 착량묘(鑿梁廟)가 있고 삼도수군통제영을 두룡포에 이영(移營)한 후 이순신을 단독 배향한 통제영 공식 사당인 통영 충렬사(統營忠烈祠)가 있다. 제승당과 착량묘, 통영 충렬사는 이순신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병선 700여 척을 이끌고 1592년 4월 13일 오후 4시경 부산포를 침략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 부산이 함락되자 일본군은 육로에서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거침없이 올라갔다. 그러나 수로에서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이 연합함대를 이용하여 연전연승하고 있었다. 특히 한산대첩의 승리는 일본군의 서진을 막는 중요한 승리였다. 이후 한산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순신은 1593년 7월 14일 진영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긴 후 1597년 2월 26일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한산도에서 3년 7개월을 보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시 이곳 한산도로 진영을 옮긴 이유는 전라도로 가는 왜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이었다.¹⁾ 『난중일기』는 임진년(1592) 1월 1일부터 무술년

1) 『亂中日記』 기사년 7월 14일 진영을 한산도 두을포로 옮겼는데, 비가 땅의 먼지를 적실뿐이다. ; 『宣祖修正實錄』 27권, 선조 26년 7월 1일 계축,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이 군영을 한산도(閑山島)로 옮기기를 청하니 따랐다. 한산도는 거제(巨濟)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산세가 빙 둘러쳐져 배를 숨기기에 편리하였고 왜선(倭船)이 호남을 침범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해야만 하였다. 이순신은

(1598) 11월 17일까지 6년 11개월까지의 일기이다. 『난중일기』는 대부분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쓴 기록이며 한산도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난중일기』의 대부분을 한산도에서 썼다는 의미는 한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한산도는 폐허 되고 방치되었다. 후대의 한산도에 제승당이 증건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제승당은 방영(防營)을 견내량으로 옮기면서 방치되 다시피 했다가 증건되기도 했다.

한산도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된 결과는 많지 않다. 한산도와 연계한 연구는 임진왜란이나 한산대첩 또는 통제영의 일환으로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삼도수군통제영의 일환으로 한산도 통제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도 있다.²⁾ 또한 한산대첩에 대한 분석 시 한산도가 언급되었다.³⁾ 한산만의 지리적 조건을 분석한 자료도 있다.⁴⁾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한산도 제승당의 증건 배경과 운영에 대하여서는 연구 실적이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통제영 시대에 한산도를 143년간 방치했다가 조경(趙倣, 1677~1743) 통제사가 1740년(영조 16)에 증건했다.

본진(本鎭)이 좌측에 치우쳐 있어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한 것이었다.

- 2)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정현창,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37,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22 ; 노승석, 「임진왜란기 한산도(閑山島) 통제영(統制營)에 관한 연구-역사 사료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52, 태동고전연구소, 2024
- 3) 이민용, 「한산대첩의 주요 경과와 역사적 의의」,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6 ; 제장명, 「이순신의 수군 전략과 한산대첩」, 『군사』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이순신의 수군 운용」, 『이순신연구논총』 31,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9 ; 임원빈, 「『난중일기』를 통해 본 한산도와 이순신의 건강」,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4
- 4) 제승당관리사무소, 『制勝堂誌』, 1994. ; 김일룡, 「이순신의 한산도 제승당 고찰」,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2023

많은 통제사가 거쳐 갔지만 제승당을 방치하고 증건하지 않았다. 이 중요한 이순신의 유적을 다시 증건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사유를 찾아야 제승당의 성격과 운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승당의 증건 배경과 성격, 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제승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한산도 제승당을 증건한 배경을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석하겠다. 또한 제승당의 성격에 대하여 사료를 중심으로 확인하겠다.

3장에서는 『제승당 고평록』의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고 방문자와 현성물품을 분석하여 제승당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겠다.

한산도에 대한 연구는 임진왜란 시기의 한산도 연구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증건된 제승당에 대한 의미와 방문자들의 분석은 부족했다. 제승당을 방문한 사대부들의 시문과 방문기를 분석하고, 『제승당 고평록』을 중심으로 방문자들과 현성품을 분석하여 18~19세기 제승당의 성격과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기는 제승당을 증건한 이후 통제영이 폐영되는 시기까지를 범위로 잡았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시기의 한산도는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제승당이 증건된 이후의 연구는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제승당에 관한 시문과 방문기 및 각종 사료를 검토할 것이며 『제승당 고평록』을 분석할 것이다. 『제승당 고평록』은 1740년(영조 16)부터 1860년(철종 11)까지 129년간의 방문자와 현성물품이 기록된 당대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제승당에 관한 방문자와 현성물품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이므로 방문자를 통하여 제승당의 성격과 현성물품을 통하여 운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방문자들의 인식을 밝히고 이순신의 한산도와 함께 현대의 제승당 현창 사업에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이다.

2. 한산도 제승당 증건과 성격

1) 조경 통제사의 제승당 증건 배경

정유재란 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한 조선 수군은 배설이 12척의 판옥선만 거두어 퇴각하면서 한산도를 청야작전으로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후 통제영은 두룽포로 옮겼으나 한산도는 방치되었다. 통제영 초기 첨방(添防) 제도에 의하여 풍화기에 전라도 수군은 통제영으로, 충청도 수군은 전라도로 이동하여 첨방했고, 풍고기에 파방(罷防) 했다.⁵⁾ 당시 조선의 전략은 수군 및 전선의 확보와 첨방 제도 시행, 수군진 정비가 주를 이루었다.⁶⁾

1739년(영조 15) 조경이 통제사로 부임하면서 폐허가 된 한산도를 보고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고 호령하던 곳인데 주춧돌이 옮겨지고 우물과 부엌마저 메워졌다고 하며 이듬해 1740년(영조 16) 당을 증건하고 '제승당'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임진왜란 시기 한산도의 집무실을 대청(大廳)이라 했다. 대청은 한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증건되었다.⁷⁾ 대청은 후대의 기록에 운주당(運籌堂)이라고도 했다.⁸⁾ 운주당은 그 집에서 작전계획을 세

5)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5-44쪽

6)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수군」,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7) 『亂中日記』 乙未年 9월 25일

8) 『懲毖錄』 권2, 舜臣在閑山時 作堂名曰運籌 日夜處其中; 『謚狀』, 元均代爲統制 盡反公軍政 公在鎮作運籌堂; 『李忠武公全書』, 「行錄」, 公爲都督 設酒於運籌堂

우고 전략을 의논하던 곳이라 운주당이라 했다. 조정 통제사는 사라진 한산도 대청을 중건하면서 운주당이란 당호를 쓰지 않았다. 이미 통제영에는 통제사의 공식 집무실인 운주당이 있었다.⁹⁾ 운주당은 인조대인 1645년 통제사 이완(李浣, 1602~1674)이 세병관 동쪽에 건립하였고 운주당이라 이름 붙였다. ‘운주(運籌)는 『사기』 「고조본기」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짜서 천 리 밖의 승리를 결정한다(運籌於帷幄之中 決勝於千里之外)”에서 나온 말로 군막 속에서 작전계획을 짜고 구상해 내는 것이니 곧 대장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¹⁰⁾ 100여 년이 지난 이곳에 중건한 한산도 대청을 운주당이라 하지 않고 이순신 승리의 장소인 의미를 담아서 제승당이란 당호를 써 편액을 달았다.

그러면 조정 통제사는 143년간 방치되었던 한산도를 왜 중건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조정은 무과에 급제 후 선전관을 거쳐 금군장, 춘천부사, 충청수사, 여산부사, 전라병사, 회령부사, 곡산부사, 영주목사, 영변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정은 1727년(영조 3년) 9월 13일 전라병사로 부임하였으며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하는데 공적을 쌓았다.¹¹⁾ 이인좌(李麟佐, 1695~1728)는 무신란을 일으켜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도성으로 진격하던 중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진압군은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 1673~1728)과 종사관 박문수(朴文秀, 1691~1756)와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이었다. 한편, 충청병사였던 이봉상(李鳳祥, 1676~1728)은 무신란 때 청주에서 순절하였다. 이봉

9) 『統營志』, 규장각도서 10876, 運籌堂順治二年乙酉李公浣始建

10) 김현구. 「조선 후기 統制營의 公廡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105-161쪽

11) 『英祖實錄』 13卷, 英祖 3年 9월 13일 병인, 以尹惠教爲副提學, 趙德麟爲校理, 李匡德爲修撰, 趙倣爲全羅兵使; 17卷, 英祖 4年 4월 1일 신사, 全羅兵使趙倣狀啓言, 兵營武人趙萬挺往見羅州謫居人李眞儒, 自言隨往朴弼夢之行, 眞儒捉萬挺, 告營將田日祥囚禁, 命拿來

상은 반란군이 칼로 위협하자

너는 충무공 집안에 충의가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지 않느냐.¹²⁾

하며 저항하다가 장전(張鉞)과 이배(李培) 등에 의해 맞아 죽었다. 이때 남연년(南延年, 1653~1728)과 홍임(洪霖, 1685~1728)도 함께 순절하였고, 이봉상의 숙부인 이홍무(李弘茂, 1665~1728)도 사망하였다.

이홍무의 아들 이명상(李命祥, 1692~1745)은 부친의 시신을 거두고 상례를 치른 후 중앙 군직에 복귀했다가 전라좌수사와 충청수사를 역임하였다.¹³⁾ 이후 1731년(영조 7) 이봉상은 현충사에 추향되었고 적손인 이홍의(李弘毅, 1648~1735)의 둘째 아들 이언상과 그의 아들 이한응(李漢膺, 1711~1779)이 연이어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이순신 후손의 희생은 자손에 대한 탁용으로 이어졌다. 이순신과 그 후손은 죽음으로써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선조의 뜻을 이어 후손까지도 국왕에게 충의를 다하는 충신의 표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의 이순신 후손에 대한 포장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선조인 이순신의 죽음과 연동하여 현창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⁴⁾

조경은 무신란 진압에 참여하였고 이봉상의 순절과 이순신 후손의 포장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에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였다.¹⁵⁾ 영조가 내린 삼도수군통제사 조경의 부임 교서에 “충무공

12) 『英祖實錄』 16卷, 英祖 4년 3월 15일 을축

13) 『英祖實錄』 32卷, 英祖 8년 7월 8일 임진 ; 英祖 16년 5월 29일 무진

14) 윤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장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18쪽

15) 『英祖實錄』 49卷, 英祖 15년 6월 20일 을미

(忠武公)의 옛 공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힘써 적을 제압한 계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스스로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조경은 통제영에 부임하여 이순신의 전적지인 한산도를 순시하던 중 이곳이 황폐화해지고 세월이 흘러 역사가 잊힐까 두려워 제승당을 중건하게 된다. 이것은 무신란의 진압 과정에 참여한 조경이 이봉상을 비롯한 이순신 후손의 충절을 통제사로 부임한 후 한산도에서 이순신의 충절과 연결하여 현창하는 작업으로 확대 계승하고자 한 의도로 생각된다.

조경이 제승당을 중건한 사유를 「제승당 유허비」와 「제승당 기문」에서 찾아보자.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의 옛터에 1739년(영조 15) 유허비를 세웠는데 글은 도사 정기안(鄭基安, 1695~1767)이 짓고 조경이 썼다. 비의 첫머리에 고통제사충무공이순신한산제승당유허비(故統制使忠武公李舜臣閑山制勝堂遺墟碑)라 적고 뒷면에 경위를 새겼다.

이제 군자 이르되 통제공 조경은 과연 능히 임금을 섬기는 분이라 하리니 그 어른을 사모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비를 세울 것이며 진실로 사모하는지라 반드시 본받을 것이며 진실로 본받는 자는 반드시 충성되고 의로울 것이며 충성되고 의로운지라 임금을 섬길 따름 다른 무엇이 있을까 보나. 여기 이 비를 세우고 쓴 이는 통제사 조경이요 글을 지은 사람은 도사 정기안이다.¹⁶⁾

이같이 유허비에는 이순신의 충절에 대하여 숭모하는 마음과 국왕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제승당을 중건한다고 기록했다.

16)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69쪽, 於是 君子曰 統制公 於是乎能事君矣匪慕其人 曷能碑之 苟慕矣 必效之 苟效矣 必忠而義 能忠而義 於事君乎何有 碑而書之者 統制使趙儼也 文而記之者 都事 鄭基安也

한편, 제승당의 기문을 쓴 조현명은 무신란 때 반란군의 진압대장 도순무사 오명항의 종사관으로 박문수와 함께 진압에 참여하여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조현명은 이후 전개된 훈포장에도 깊이 참여하여 이순신의 현창 사업을 이해하고 있었다. 조현명이 쓴 「제승당 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충성과 의리란 사람의 성품 속에 본시부터 있는 것이지 마는 반드시 권장하는 일이 있는 연후라야 일어나는 법이니 그러므로 이 제승당을 짓는 것도 실상 남방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때문인 것이다. 남방 백성들의 충무공에 대한 생각은 실로 부모 같이 사랑하고 신명같이 두려워했지만, 세월이 오래되고 보고 듣던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집집이 제사를 지내던 옛 풍속마저 이제 와서 차차 게을러지고 있다. 이런 때를 당하여 한 번 일깨우는 길이 없으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장할 바가 있겠는가.¹⁷⁾

조경은 이순신의 현창 사업인 제승당을 증진하면서 그 뜻은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는 데 있다고 기문에서 밝혔다. “충성과 의리란 사람의 성품 속에 본시부터 있는 것이지 마는 반드시 권장하는 일이 있는 연후라야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여 충신의 대명사인 이순신의 흔적을 세우는 것은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전쟁이 끝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남방 백성들에게 충무공은 여전히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순신이 호령하던 옛터가 잊혀가는 것을 되살리고 백성들에게 충의를 권장하기 위하여 충무공이 작전을 지휘하던 제승

17) 趙顯命, 『歸鹿集』 卷8 記;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3, 忠義之於人性所固有然必待動而後興焉 然則斯堂之作 乃所以動 忠義於南民也 南民之於忠武公蓋嘗有父母之愛 神明之畏 然歲月既久 耳目浸遠 昔之家侑 而戶祝之者 今至於漸息 當時時也 不有以興起之 則民惡能有所動也

당을 증건한 것이다.

통제영에서도 통제사의 행사 시, 혹은 훈련 시 이순신을 상징하는 명조팔사품을 거치하고 일체화하여 권위를 세웠다. 통제사의 인식이 그러한데 군관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이순신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았다. 제승당의 증건은 그런 인식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라 조현명은 기문에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제승당의 증건은 무신란의 이순신 후손인 이봉상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원으로 증건하였다. 이에 제승당을 증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2) 한산도 제승당의 성격

제승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승당 고평록』과 『서행록』, 『통영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¹⁸⁾

당에 기록이 유(有)하고 서적이 있으니 알겠지만, 제승당은 해도 중에 있어 비바람에 서로 깎여 충사의 흔적이 없히어 있으니, 예로써 그 보존 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 승도를 차출하여 여기에 기거케 하였다. -『제승당 고평록』-¹⁹⁾

18) 『制勝堂 古風錄』: 조정 통제사가 제승당을 증건하면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고평록을 작성하여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아 기록한 책. 『西行錄』: 전라도 고흥의 여신송씨 문중의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등 3대가 쓴 일기이다. 이들은 선조들의 충절에 대한 포장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위하여 다각도로 활동한 내용이 『서행록』이다. 『統營志』: 통제영 폐영 1년을 앞둔 1894년 필사한 통영의 지리지이다. 통제사가 겸직한 통제영과 경상우수영의 군사, 행정, 재정, 수군 훈련 및 유사시 동원 체계를 중점적으로 수록했으며, 책의 구성은 1권 46장이다.

19) 신수환 소장, 『制勝堂 古風錄』, 序文, 堂有記有書 而知之也 堂在海島中風雨相磨 虫蛇交迹典 守之 方不可 不用策 茲令差三緇徒

난간에 기대어 잠시 쉬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곳에 거처하는 스님이 밥을 차려주었다. 제승당 뒤의 두어 칸의 집은 바로 본토의 스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탁임(卓稔)이란 이름의 수직 승장(守直 僧將)이 조금은 사람을 알아보니 쇠 중에도 쨍쨍 울리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제승당에 묵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가 요해지고 오직 소나무 숲에서 슬피 울어대는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행록』-20)

1740년(영조 16년) 조경 제107대 통제사가 중건하고 거제 앵산사 승도 들이 수호케하였다. 두억포에 있는 군창둔 3섬지기를 떼어 붙여 주었다. -『통영지』 -21)

1740년(영조 16년) 『제승당 고평록』에는 세 승도들에게 당을 지키게 했으며, 1759년(영조 35년) 『서행록』의 「통행일기」에도 탁임이라는 수직 승장의 안내를 받아 제승당을 방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년)의 『통영지』에는 거제 앵산사의 승도 들이 당을 수호케 했다고 하였다.²²⁾ 이처럼 제승당은 조경 통제사가 중건 후 승도 들이 당을 지키게 하였다. 제승당은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한산은 거제에 있고 거제는 노비의 소굴이라 하여 숨어 사는 노비들이 많아 양반들이 한산도로 오면 곤란

20) 宋廷岳·宋志行, 『(국역)西行錄』 2, 재)한국호남진흥원, 2021, 32쪽, 憑軒小憩 日已夕矣 居僧進飯 堂後數間舍 卽本土爲髡者居 而守直僧將名卓稔 稍知人事 可謂鐵中錚錚者也 宿制勝堂 夜深波靜 惟聞杜鵑啼於松樹間而已

21) 『統營志』 규장각서10876호, 英廟朝庚申 趙公徹重建以巨濟鶯山寺僧徒守護 頭億浦所在軍倉屯三石 落只劃付

22)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원, 『韓國의 寺址 현황보고서 경상남도』, 2019상, 거제 하청의 앵산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09호로 지정된 거제 하청 북사지가 있으며 한편 이곳에 조선시대 淨水寺가 건립되어 승려수가 무려 70여 명이라고 전해진다. 18세기 문헌에는 ‘鶯山에 있다’고 하였지만, 이후 간행된 『경상도읍지』 등에는 폐사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을 겪는다고 한다. 뱃길이 멀어 살림살이가 궁하여 당을 지키는 승도 들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를 짜 팔아서 사용했으나 이마저 부족하여 참배객들에게 물품을 희사받고 고품록을 작성하였다. 조현명이 지은 「제승당 기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한다.

이제 공의 옛터가 묻힌 지 또한 100년이 지났는데 요즘 조 공이 그곳에 올라가 보고 탄식하되 ‘이곳을 황폐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하고 마침내 이 집을 세우게 되었다. 그 규모와 제도는 한결같이 충무공 때의 옛 모습 그대로 하고 또 공청 수십 칸을 따로 지어 큰 조련을 할 때 군사들의 음식 먹는 곳으로 쓰며, 나에게 편지를 보내와 기문을 청하기에 나는 쾌히 승낙하였다.²³⁾

이 기문에 의하면 중건 당시 제승당의 규모와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8세기 말엽 제승당은 대청이 팔각 3칸이고 방 2칸, 뒷면에 좌우협방 2칸, 청 1칸이었고, 따로 수직소청 1칸과 좌우방 2칸과 주방 1칸, 그리고 충무공의 유허비를 모신 비각이 1칸이었다.²⁴⁾

송정악(宋廷岳, 1697~1775)은 「통행일기」에 통영 충렬사를 방문 참배하고 『심원록』에 이름을 적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실제 통영 충렬사 소장 『심원록』에 기록이 남아있다.²⁵⁾ 「통행일기」에는 다음날 제승당을 방문하고 하룻밤을 묵은 내용이 있다.

대개 한산의 형승(形勝)은 뒤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고, 남쪽 산

23) 趙顯命, 『歸鹿集』 卷8 記;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3, (전략)於是公舊址湮歿且百年矣 乃者 趙徹登覽而歎曰是不可一任其荒廢也 遂重建斯堂 其規制 一皆按公之故 又別爲廡數十架 以爲大操 時饗士之所 專書告余請爲記 余日諾(후략)

24) 통영시사편찬위원회, 『統營市誌』 1권, 2018, 377쪽, 『영지』(국중본) 아사, 재인용

25) 통영 충렬사 『尋院錄』 2권 74면; 壺山後人 宋廷翼 宋廷岳 宋日甲 己卯五月初二日 居興陽

자락은 굽실굽실 북쪽으로 회전하여 제승당을 감싸고 앞바다를 가리고 지나간다. 제승당 앞은 수백 척의 배를 수용할 만하였는데, 동쪽에서 보면 바닷길이 남해(南海)와 바로 통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임진왜란 때, 왜선들이 항구에 많이 쳐들어오자, 충무공이 오는 길을 막아서 끊어 버리고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남쪽 나지막하고 좁은 곳은 왜노(倭奴)들이 온 힘을 다해 파서 지나가는 길을 뚫고자 했는데, 바윗돌로 이루어진 산줄기라서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를 ‘포항(浦項)’이라 일컫는다. 포항에서 제승당까지 거의 5리 정도 가면 충무공의 직당(直堂, 집무실)인데, 항상 여기에서 머물렀다고 하며, 그 뒤로는 거처를 지금의 통영으로 옮겼다고 한다. 제승당 아래에 이르러 정박하니 송죽(松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10여 걸음을 가니 충무공유허비(忠武公遺墟碑)가 있었다. 유허비 가에 조금 높고 평평한 곳에 3칸으로 지어진 웅장한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들보와 문미가 크고 넓은 것이 대궐만큼 큰집이라 할 만하였다. 그 들보에는 ‘제승당(制勝堂)’이라는 세 개의 대자(大字)로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북쪽 문미에는 충무공의 야음시(夜吟詩)가 걸려 있다.²⁶⁾

이같이 제승당은 유허비 가에 조금 높고 평평한 곳에 3칸의 대궐 같은 큰 집이라 했다. 수직 승장이 제승당을 관리하며 그가 거처하는 곳이 제승당 뒤의 두어 칸의 집이라 했다. 한편, 『통영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6)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29쪽, 蓋閑山形勝, 後峯卓立, 南麓逶迤, 向北回轉, 繞抱制勝堂, 掩過前洋. 堂前可容數百艘, 自東視之, 疑若海路之直通南海, 故王之變, 蠻船多入港口, 忠武公遏絕來路, 鏖戰大捷. 南邊低細處, 倭奴盡力掘之欲通去路, 而石骨連脈, 未得售計, 其痕尚在, 稱云浦項. 自浦項 至制勝堂幾五里許, 忠武公直堂, 而常留于此矣. 其後移居今統營云. 到泊堂下, 松篁成林, 行十餘步, 有忠武公遺墟碑. 碑上稍高平易處, 作三間傑構, 樑楣宏闊, 可謂廣廈. 樑間懸制勝堂三大字, 北楣懸忠武公夜吟詩.

1746년(영조 22)에 이연상 제111대 통제사가 계문 하여 우후로 하여금 풍화 6개월간 유방하게 하였다. 1752년(영조 28) 구선행 제114대 통제사가 방을 견내량으로 옮길 뜻을 계문 하였고 1753년(영조 29)에 조동점 제115대 통제사가 다시 계문 하여 1754년(영조 30)에 방을 견내량으로 옮긴 후 승도 들이 수호하게 하였다. 1769년(영조 45) 이국현 제127대 통제사가 영노(營奴)로써 수직을 바꾸었다. 1771년(영조 47) 장지항 제128대 통제사가 비로소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니 지금까지 수호하고 있다.²⁷⁾

『통영지』에 의하면 이연상(李彦祥, 1681~1755) 통제사 때 제승당을 방영(防營)으로 삼아 풍화(風和) 시 6개월간 근무했다.²⁸⁾ 한산도는 끝없는 바다를 가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왜적을 방비하는 데 지리적 불리한 점이 있었다. 대신 견내량은 그의 인후(咽喉)를 이루었으며 임진왜란 시에도 거제는 일본군의 수중에 들었지만, 견내량만은 인후로서 방비했다. 인후로서의 견내량을 지키기 위하여 조동점(趙東漸, 1700~1755) 통제사가 방영을 이동하는 것을 계문 하여 제승당에서 견내량으로 이진하였다. 견내량으로 방영을 이진한 후 승도 들이 수호하던 제승당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진을 맡아보던 주인도 없어지고 허물어져 가는 제승당을 이태상(李泰祥, 1701~1776) 통제사가 1760년(영조 16)에 중수하면서 「제승당 중수기」를 걸어 놓았다. 「제승당 중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27) 『統營志』 규장각서10876호

28) 계절풍 지대인 동아시아는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대륙에 해양으로 북풍이 분다. 남풍이 부는 것을 風和라 했으며 이는 음력 3월~8월이고 風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다.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풍화에는 나아가 방비하고 풍고에는 철수하였다.

이 집은 내 선조께서 임진년 주둔했을 때 세웠던 것인데 중간에 있었다 없어졌다 한 사적은 조 정승과 정 도사의 기문에 자세히 적혀 있다. 일단 우후가 수비하는 곳을 견내량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진은 맡아보는 주인도 없어지고 또한 유희비각은 자리조차 비습하여 국란을 막아내던 중요한 곳에 기왓장은 기울어지고 제목은 썩고 비석에는 이끼가 끼어 사람들이 지나다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구름과 물만이 흰히 보일 뿐임을 탄식하고 옛 어른이 끼친 자취가 나날이 묵어감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손으로 이렇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여겨 감히 장인들을 모으고 땅을 가려서 영원히 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제승당은 조 공이 지었던 옛집을 그대로 중수하고 비각은 제승당 뒤로 옮겨다가 썩은 곳은 갈아 내고 또 비석 글자가 희미해진 것은 새롭게 하였다. 대개 집이 있고 없는 것으로 내 선조에게 경중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옛사람들의 이른바 그 물과 그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인정상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려니와 또한 오늘을 두고 미리 일러둔 말이라고도 하겠다. 뒷날 군자들은 나의 집안 사싯일이라 말하지 말고 허물어지는 것을 수보 하여 쓸쓸해진 것을 면하게 하면 이 집에 올라와 옛 자취를 어루만져 보는 이는 적이 마음이 감응되는 바 있을 것이니 그야말로 몸을 던져 순국하는 의리를 권장함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조 공이 이 집을 중건하던 본의의 것이며, 또 어질지 못한 내가 구구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²⁹⁾

29) 『李忠武公全書』 卷11 「附錄」3 ;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76~77쪽, 制勝堂重修記後孫 統制使 泰祥 堂即我先祖壬辰駐兵時所建也 中間興廢之跡 趙相國政承宣之記詳矣 一自虞候留防之移設於見乃梁 日月侵尋軒檻無主 又遺墟碑閣 卜地洫灣 風雲儲冑之區 瓦歌木朽龜蚶莓苔 人之過之者 未嘗不徘徊俯仰 愴雲水之俱白 惜軌躅之日陳疏余孱孫 用是爲懼 乃敢鳩工相地 久遠是圖 堂則仍趙公之舊而修之 閣則就堂後移之 易其腐缺 而新其漫漶 夫堂之興廢 固不足為我先祖輕重 而若 所謂水不忍廢 地不忍荒者 亦人情之所不已 而為今日準備語也 後之君子 其亦毋以我一家之私 而隨壤繕治 俾免湮圯 則登斯堂 而撫遺迹者 庶其油然而感 喟然而興 競有勸於忘身殉國之義也歟 此固趙公當日重建之意 而亦不肖區區之所 竊望於人 人云爾

이처럼 방영을 옮겨간 제승당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여 통제사로 부임한 이순신의 5대손 이태상은 ‘옛사람들의 이른바 그 물과 그 땅을 차마 황폐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새기며 중건하고 이 집에 올라 옛 자취를 어루만지며 몸은 던져 순국한 의리를 권장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였다.

1877년(고종 14) 이규석(李奎奭, 1835~1894) 통제사는 조경 통제사가 세운 제승당 유허비가 낡아 땅에 묻고 「구비매처(舊碑埋處)」라고 돌에 표석을 세웠다. 조경이 세운 비의 첫머리에 적힌 이름은 ‘고통제사충무공이순신한산제승당유허비(故統制使忠武公李舜臣閑山制勝堂遺墟碑)’였다. 구비를 묻고 새로 세우면서 정기안의 옛글을 그대로 새겼으며 비의 첫머리 이름은 ‘유명수군도독조선국중선무공신영의정덕풍부원군행삼도통제사시충무이공순신한산도제승당유허비(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宣武功臣領議政德豐府院君行三道統制使諡忠武李公舜臣閑山島制勝堂遺墟碑)’라 새겼다.

이같이 제승당은 조경 통제사가 중건한 후 승도 들이 관리를 하다가 이언상 통제사가 방영을 설치하였다. 방영을 설치한 후 우후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제승당은 위치적으로 전함을 숨기기는 좋으나 적의 길목을 지키기는 적당하지 않아 견내량이 적도들의 인후로서 방영을 견내량으로 옮겼다. 방영을 옮긴 간 후 승도들의 관리는 부실하였다. 대개 한산은 거제에 있고 거제는 본디 다른 사람 노비의 소굴이라 불렸다. 전부터 추노(推奴)인 자가 ‘한산을 구경하다가 결국 숨어 사는 노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많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양반을 보지만 하면 몹시 머리가 아파 어떡하던 쫓아낼 궁리를 한다’고 했다.³⁰⁾

세월이 흐르며 제승당은 당을 지키던 승도 들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허물어져 1760년(영조 16) 이태상 통제사가 중건하였다.

30)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29쪽

1769년(영조 45)에는 영노(營奴)가 수직하였다. 1771년(영조 47) 장지항 제128대 통제사가 비로소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여 수직 하면서 통제영이 폐영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한편, 진재(眞宰) 김윤겸(金允謙, 1711~1775)의 「한산제승당도」는 『영남기행화첩』속 그림과 유사하여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¹⁾ 이 작품에는 제승당에 서 있는 여러 명의 인물과 활을 든 사람들, 전선이 그려져 있다.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영영일기(嶺營日記)』에는 그가 활쏘기를 39번 했는데 제승당에 들러 활쏘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²⁾ 당시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의 활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관리들은 이순신처럼 활을 쏘며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한산도 제승당은 18세기 당시 영남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이들이 주로 찾던 유적지였다.³³⁾

이처럼 한산도 제승당은 여러 이유로 방문하는 조선 후기 유적 추모 공간으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수군 진장들과 지방관들은 통제영을 방문할 때 제승당을 함께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여겼다. 이것은 제승당이 이순신의 승첩지인 동시에 활터로서 역할을 했으며, 꼭 가보아야 할 유적 추모 공간 지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대부가 제승당을 방문하고 시문을 남겼다. 정익하(鄭益河, 1688~1758)는 『제승당 고품록』 7면에 현성 물품이 기록되어 있으며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순찰하며 지나갈 때 통제사 조경에게 시를 지어주었다.

31) 김윤겸, 「한산제승당도」, 18세기, 30.1×45.5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32) 하동률, 「『嶺營日記』에 나타난 조선후기 관찰사의 생활상」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1쪽, ; 『嶺營日記』 영조 27년 9월 20일, 재인용

33) 김시우,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화첩』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107쪽

그대는 서쪽에서 왔고 나는 동쪽에서 와
 문무(文武)의 두 원용 한자리에 앉았네.
 땅은 적벽에서 접전했던 형세 남아 있는데
 사람은 금성에서 오랑캐 격파한 공 멀어졌네.
 천리의 묘한 계책 준조 속에 있고
 오래전 지은 사당 한 폭의 그림 같네.
 누선(樓船)이 돌아가는 길에 고래 물결 잠잠하고
 고각소리 아직도 대수의 바람에 전한다네.³⁴⁾

제승당을 방문한 송정악 일행은 제승당에 하룻밤 묵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 고요해지고 오직 두견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밤새 뜬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장군과 나의 죽고 조의 충의를 회상하다가 장군의 야음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고, 판서(判書) 정자겸(鄭子謙)의 시에 차운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공업은 동해처럼 넓고
 성명은 북두처럼 높도다
 후생의 끝없는 한은
 시험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칼을 가는 것³⁵⁾

유유히 유랑하는 자취 동서로 맘껏 다니는데
 저 멀리 보이는 남쪽 바다 견용과 인접하였네
 용사의 국가 변란 차마 어찌 말하라
 애처롭도다 계구의 기이한 공로여³⁶⁾

34)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1쪽, 君自西來我自東, 一廷文武兩元戎, 地餘赤壁鏖兵勢, 人遠金城破虜功, 千里妙籌樽俎裡, 百年新構畫圖中, 樓船歸路鯨波靜, 鼓角猶傳大樹風

35)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2쪽, 勳業東溟闊, 聲名北斗高, 後生無盡恨, 難試久磨刀

36)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5쪽, 悠悠浪迹任西東, 遙望南洋接犬戎, 忍說龍蛇家國變, 堪憐鷄狗辦奇功

노량진 귀신은 성난 파도 속에 흐느끼고
산꼭대기 잔나비는 안개 속에서 울어대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변방이 잠잠하니
아득한 바다 만 리 바람도 없이 고요하네³⁷⁾

정익하는 관찰사가 되어 제승당에 와서 물품을 헌납했으며, 조정 통제사에게 시를 지어주었는데 문무의 두 원용이 한자리에 모여 왜적을 격파한 이곳 제승당을 바라보다 배를 타고 돌아가며 감흥을 적었다. 조선시대 후손들이라면 선조의 절의가 뛰어났거나 학식이 높았거나 간에 누가나가 선조에 대한 선양사업을 필연의 사명감으로 생각한다. 송정악 일행도 제승당을 방문하여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순절한 죽고조 송대립, 송희립을 회상하며 3편의 시를 남겼다.

신좌모(申佐模, 1799~1877)는 1869년(고종 6) 3월, 영남을 방문하여 해인사, 영남루, 한산도 등을 유람하면서 『담인집(澹人集)』 권8 「교남기행(嶠南紀行)」에 박한산도 등제승당(泊閑山島登制勝堂)이란 시를 남겼다.³⁸⁾

한산도에 묵다가 제승당에 올라
한산도 항구 적의 소굴에 연기 자욱하니
그 당시 싸움에 이긴 공적이 생각나네.
적벽의 물가엔 주유의 성체가 늘어서고
악비의 군대는 누런 하늘을 뒤흔들었지.

37)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5쪽, 露湖鬼泣驚波裡. 尖岬猿啼宿霧中, 何幸今來邊警息, 滄溟萬里靜無風

38) 申佐模(1799-1877)는 본관은 고령(高靈), 성씨 신씨(申氏), 자는 좌인(左人), 좌보(左輔), 호는 담인(澹人), 화수헌(花樹軒)이며 1867년(고종 4) 병조 참판, 동지춘추 관사가 되다. 1869년(고종6) 3월, 嶺南을 방문하여 海印寺, 嶺南樓, 閑山島 등을 유람하다.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물고기와 용은 하늘의 해를 건 맹세를 듣고
 거북과 새는 줄지어 바다 구름을 끌어갔네.
 제승당 앞 천 길 물속에선
 지금도 밤늦도록 곡소리가 들리네.³⁹⁾

한산도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승전했던 곳으로 물고기와 용은 하늘의 해에 맹세하고 거북과 새는 줄지어 해운(海雲)을 끌어갔고 제승당의 물길 속에는 지금도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즉 임진왜란을 극복한 승리의 장소임을 상기시키는 시이다. 이순신의 충절이 과거의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당시까지도 면면히 이어지는 살아 있는 역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시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순신의 충의를 생각하며 각자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대부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쏘기도 하였다. 이순신과 인연이 있는 후손들의 방문도 이어져 선조들의 선양 작업의 일환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제승당은 조경이 증건한 이후 한 때 방영을 운영하다가 방영이 견내량으로 이동한 후 통제영 수조를 행할 때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쉬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국왕뿐 아니라 국왕의 복심인 통제사와 수군 진장 및 지방관들까지 임진왜란의 승전을 기억하는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다만 제향

39) 申佐模, 『澹人集』卷之八, 詩 嶠南紀行, 閒山港口賊巢燻, 尙想當年克捷勳. 赤壁磯橫公瑾寨, 黃天蕩撼岳家軍. 魚龍聽誓懸天日, 龜鳥排行掣海雲. 制勝堂前千丈水, 至今啾哭夜深聞

의 공간은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 1932년 충무영당(忠武影堂)을 건립하고 이듬해 준공하면서 제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⁴⁰⁾

3. 『제승당 고풍록』과 제승당 운영

1) 『제승당 고풍록』의 구성

제승당을 증건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고풍록(古風錄)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고풍(古風)이란 조선시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전례에 따라 인사와 관계가 있는 관청의 서리(書吏)·하례(下隸)에게 행하(行下)를 주는 문서로서 이때 주는 돈을 고풍채(古風債)라고 한다. 남계서원의 『부보록(裋寶錄)』과 같은 의미다.⁴¹⁾

『제승당 고풍록』은 1740년(영조 16)부터 1860년(철종 11)까지 129년간의 방문 기록이며, 구성은 1권 30면이고 1면은 제목으로 제승당(制勝堂) 고풍록(古風錄) 무신개장(戊申改粧)이라 쓰여 있고 2면부터 5면까지 서문이 초서체로 쓰여있다. 6면부터 30면까지 방문자의 직위와 이름이 있으며, 방문 일자, 헌성품목이 적혀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堂)에 기록이 유(有)하고 서적(書籍)이 있으니 알겠지만, 제승당은 해도 중에 있어 비바람에 서로 깎여 충사의 흔적이 엷히어

40) 제승당관리사무소, 1994, 앞의 책, 55쪽 ; 통영 충렬사 소장 『歲出內譯簿-忠烈祠永久保存會-』. 大正拾壹年度~昭和六年度까지의 성책에 의하면 제승당에서 춘후과 秋享, 寒食, 端午, 秋夕, 正월에 제례를 행하고 비용을 계산했다.

41)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裋寶錄』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화』 75, 대동한문화회, 2023, 5~41쪽

있으니, 예로써 그 보존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세 승도를 차출하여 여기에 거처케 하였다. 그러나 뱃길이 궁하고 거민이 적어 자리를 짜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 되지 않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찌 살아갈 것이며 사는 길이 끊기면 어찌 이를 지키려고 할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겠는가. 이 고품록을 비치하고 관서 승지의 예를 본받아 후세에 전하려 하니 오는 사람은 당에 올라 이 책을 보고 약간의 물품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권하며 승도의 거처에 이바지하게 되어 당이 헐리지 아니하고 보존될 것이다. 승정재경신기⁴²⁾

서문에 의하면 제승당을 중건한 후 승도 3인을 차출하여 당을 지키게 했지만, 바닷길이 멀고 막히어 당을 지키기가 어려워 이에 『제승당 고품록』을 비치하여 당에 오르는 이에게 약간의 물품을 아끼지 않도록 권유하여 당을 지키게 한다는 내용이다. 『제승당 고품록』 6면부터 직위와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 혹은 직위 이름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 혹은 이름 방문 일자 현성물품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제승당 고품록』의 기록 명단과 물품목록이다.

42) 신수환 소장 『制勝堂 古風錄』, 序文, 堂有記有書 而知之也 堂在海島中風雨相磨 虫蛇交迹典守之方不可 不用策 茲令差緇三徒 居於斯直於斯以爲永久看護之地而舟楫路窮 居民鮮少織席販屨之業 亦隨而新焉 惠澤不加則 何以賴生 生理既絕則 亦豈能守此而不去乎 斯置古風錄 形關西勝地之例而倖傳于後 以爲來者勤登斯堂 覽此卷者 不惜苦干物以資其居僧則 磨此堂之不朽也 崇禎再庚申記

〈표-1〉『制勝堂 古風錄』수록 명단과 물품 목록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1	庚申 1740	7	16	蛇梁萬戶	※閔槁	正木3疋
2	庚申 1740	7	16	唐浦萬戶	※吳漢徵	正木3疋
3	庚申 1740	7	16	三千權管	※朴壽元	正木3疋
4	庚申 1740	7	16	昌原府使	※洪夏相	租4石, 袖子2筒
5	庚申 1740	7	16	巨濟府使	※尹鳳廷	米2石, 牟2石, 租1石
6	庚申 1740	10	1	巡使	※鄭益河	租100石 買雀11斗落只 屬本堂
7	申酉 1741	5	21	統制使	※宋徵來	租3石, 牟5石
8	申酉 1741	5	25	統虞候	沈始禧	正木1疋, 麻布1疋, 租2石
9	申酉 1741	7	7	三千權管	金就鍊	正木1疋
10	壬戌 1742	1	21	靑松府使	宋徵泰	租3石
11	壬戌 1742	3	5	河東府使	沈鳳陽	錢文3兩
12	壬戌 1742	4	11	巨濟府使	李昌重	租2石
13	壬戌 1742	4	26	三嘉縣監	※徐敏修	錢2兩
14	癸亥 1743	3	13	統虞候	※鄭贊	租2石
15	癸亥 1743	3	13	固城縣令	※李晉吉	租2石
16	癸亥 1743	3	13	玄風縣監	※朴致文	租2石
17	癸亥 1743	3	13	巨濟府使	具鼎煥	租1石
18	甲子 1744	3	13	南村別將	※廉德謙	租1石
19	甲子 1744	3	15	統制使	李玟	正租5石, 錢5兩
20	己巳 1749	8	1	助羅浦萬戶	朴瑞晉	木1疋
21	丁卯 1747	9	5	善山府使	宋堯和	租2石
22	丁卯 1747	9	20	統制使	李彥祥	麻布1筒, 租10石, 牟10石, 太10石, 米3石
23	己巳 1749	4	3	永登萬戶	※李翼道	正木1疋
24	己巳 1749	4	8	天城萬戶	李允祚	正木1疋
25	丁卯 1747	10		統制使	※李彥祥	租10石, 錢2兩
26	己巳 1749	4	14	知世浦萬戶	嚴得寬	木1疋
27	己巳 1749	4	16	齊浦萬戶	高漢崙	木1疋
28	己巳 1749	4	16	加背梁萬戶	任世郁	木1疋
29	己巳 1749	4	19	玉浦萬戶	金振聲	木1疋
30	甲戌 1754	閏4	20	標信宣傳官	李光國	木3疋
31	丁丑 1757	11	21	統制使	吳燦	租4石, 鹽1石, 燻造1石
32	己卯 1759	1	20	統虞候	※李濟命	錢文1兩, 壯紙1束
33	庚辰 1760	8	16	統制使	李潤成	正租3石, 木麥3石, 皮牟3石, 太1石
34	庚辰 1760	8	16	統制使	李泰祥	白米5石, 正租10石, 錢10兩
35	壬午 1762	8	14	巨濟府使	李邦五	租1石
36	壬午 1762	9	9	統制使	李殷春	租3石, 木麥3石, 皮牟2石
37	癸未 1763	4	13	南村別將	申埴	正木1疋
38	癸未 1763	8	3	統虞候	※李鼎賢	租1石, 錢1兩
39	癸未 1763	8	3	三千權管	※金宅坤	麻布1疋
40	乙酉 1765	閏2	18	統制使	※尹泰淵	租2石, 木1疋, 牟1石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41	丙戌 1766	8	18	統制使	※金聖遇	白米1石, 正相2石, 牟2石
42	丙戌 1766	8	18	巨濟府使	※沈履之	正相2石
43	丙戌 1766	8	22	昌原府使	※李漢五	錢1兩
44	丁亥 1767	閏7	21	統虞候	※申晈	租1石, 木1疋
45	丁亥 1767	10	5	巨濟府使	李潤國	租1石
46	戊子 1768	3	9	巡使道	※李激	正相3石, 錢20兩
47	戊子 1768	3	9	固城縣令	※柳成模	牟1石, 錢1兩
48	戊子 1768	3	9	武陵		牟1石
49	戊子 1768	3	11	天城萬戶	※金翰魯	錢1兩
50	戊子 1768	6			李真祥	租1石
51	己丑 1769	4	1	統制使	李國賢	米1石, 太1石 租2石, 牟2石
52	己丑 1769	4	1	統虞候	※沈潭	租1石
53	己丑 1769	4	1		張錫海	租3石
54	己丑 1769	4	1		李德禧	
55	己丑 1769	4	1		俞慎中	租3石
56	庚寅 1770	3	16		李亨道	
57	庚寅 1770	3	16		安是宅	
58	庚寅 1770	3	16		千一元	
59	庚寅 1770	3	16		李明良	
60	庚寅 1770	3	16		金履詰	
61	庚寅 1770	8		昌善牧官	李道徽	租5斗
62	辛卯 1771	1	10	加德僉使	※李宇平	租1石
63	辛卯 1771	5	19	統制使	元重會	牟2石, 甘藷2丹, 醬5斗, 雜魚2束
64	壬辰 1772	9		統制使	※元重會	正木1疋, 租3石
65	癸巳 1773	8		本島倉監	趙嶠	錢1兩
66	甲午 1774	8		巨濟府使	尹衡烈	錢1兩
67	甲午 1774	8		昌原府使	金致峻	錢1兩
68	乙未 1775	5		統制使	※趙峴	木1疋, 租2石, 牟3石
69	丙申 1776	10	2	統制使	李邦綏	木3疋, 租2石, 甘藷2丹
70	丁酉 1777	2	19	統虞候	※金樂淳	錢1兩
71	丁酉 1777	2	19	鎭海縣監	※李廷嫻	錢1兩
72	丁酉 1777	2	19	三千權管	※吳益贊	錢1兩
73	丁酉 1777	4		巨濟府使	※尹衡烈	錢1兩
74	丁酉 1777	5		統制使	李昌運	租1石, 牟1石, 藿3丹
75	戊戌 1778			龜山僉使	千世弼	錢1兩
76	己亥 1779	1	18	行固城縣令	任希兩	租1石
77	己亥 1779	4		統制使	徐有大	租2石, 牟3石, 錢20兩
78	己亥 1779			河東府使	李彞星	錢1兩
79	庚子 1780	3	16	巡使	※趙時俊	正相3石, 錢10兩
80	辛丑 1781	5		統制使	※具明謙	租2石, 牟3石

번호	년도	월	일	직책	성명	물품
81	乙巳 1785	4			金口喜	牟2石
82	乙巳 1785	4	5	統虞候	※柳心源	靑銅2貫
83	丙午 1786	8	20	巡察使	李啓朝	正相5石
84	丁未 1787	3	3	統虞候	※李東憲	錢文2兩
85	丁未 1787	3	3	永登萬戶	※朴宗瑁	錢5兩
86	丁未 1847	3	13	統制使	徐相五	相2石, 牟1石
87	戊申 1848	3	11	統制使	※金鍵	正相2石, 皮牟2石
88	戊申 1848	3	11	統虞候	洪鐵七	錢1兩
89	戊申 1848	3	11	固城縣令	趙閑奎	錢2兩
90	戊申 1848	3	11	巨濟府使	孫基祚	錢1兩
91	庚戌 1850	3	7	統制使	柳基常	正相5石
92				統制使	金某	口口10斤
93	庚戌 1850	3	7	巨濟府使	李觀洙	錢2兩
94	庚戌 1850	3	7	統虞候	李祉秀	錢2兩
95	庚戌 1850	4	11	泗川縣監	李基祖	
96	庚申 1860	3	20	統制使	※沈樂臣	錢文2兩, 正相5石
97	庚戌 1850	4	29	三千權管	朴東一	相1石
98	庚戌 1850	10	4	統虞候	洪載謨	錢1兩
99	辛亥 1851	4	13	巨濟府使	李晚謙	錢2兩
100	辛亥 1851	10	27	閑山口口	閔致祖	錢1兩
101	壬子 1852	4	21	統制使	李膺緒	正相2石, 皮牟3石
102	壬子 1852	4	21	統虞候	李東洙	錢2兩
103	癸丑 1853	9	13	統制使	李圭徹	正相3石, 皮牟2石
104	癸丑 1853	9	25	巨濟府使	李必熙	錢2兩
105	丙辰 1856	4	1	巡察使	申錫遇	相5石
106	丁巳 1857	3		統制使	李熙綱	相3石, 牟3石, 木麥3石, 太1石
107	丁巳 1857	4	8	統制使	洪賢泰	正相2石, 牟3石
108	戊午 1858	8	20	統制使	任泰瑛	皮牟3石, 相3石
109	戊午 1858	8	20	統虞候	尹善父	皮牟1石, 相1石
110				本官	金芋根	錢1兩
111	己未 1859	9	8		趙性敏	錢2兩
112	庚申 1860	3	7	巡察使	※洪祐吉	相5石
113	庚申 1860	3	7	統制使	沈樂臣	皮牟5石
114	庚申 1860	3	7	統虞候	閔在根	正相1石
115	庚申 1860	3	7	河東府使	李文永	相5石
116	庚申 1860	3	7	星州牧使	梁荷柱	錢3兩
117	庚申 1860	3	7	丹城	文鳳賢	錢3兩
118	庚申 1860	3	7	永川	黃德明	錢3兩
119	庚申 1860	3	7	三嘉	魚採祚	錢3兩

※ 표시는 『제승당 고품록』 원문에는 관직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서 찾음.

〈표-1〉에서 방문자 119명 중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78명이며, 관직은 있으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40명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찾았다. 이름은 있으나 관직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11명이다. 『제승당 고평록』 명단 중 1번부터 80번까지는 한 사람이 같은 필체로 작성했으며 81번부터 119번까지는 여러 명의 필체로 작성했다. 표지에는 제승당 고평록 무신개장이라 기록했으며 74번 이창운(李昌運, 1713~1791) 통제사의 말미에 구록답인(舊錄踏印)이라 쓰여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평록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20번과 96번은 방문 순서 별로 되어있지 않고 섞여 있다. 25번은 22번의 이연상 통제사의 재방문이다.

2) 제승당 방문자와 운영

『제승당 고평록』에 기록된 방문자 119명을 직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제승당 방문자 현황

관직	통제사	통우후	거제부사	순찰사	삼천권관	고성현령
방문횟수	29	15	12	6	5	5
관직	하동부사	창원부사	남촌별장	영등만호	천성만호	옥포만호
방문횟수	3	3	2	2	2	2
관직	가덕첨사	구산첨사	조라포만호	당포만호	사랑만호	제포만호
방문횟수	1		1	1	1	1
관직	가배랑만호	지세포만호	청송부사	성주목사	선산부사	삼가현감
방문횟수	1	1	1	1	1	1
관직	영천현감	사천현감	달성현감	진해현감	현풍현감	본도창감
방문횟수	1	1	1	1	1	1
관직	창선목관	한산별장	표신선전관	무릉	미기록	합계
방문횟수	1	1	1	1	11	119

〈표-2〉에서 방문자는 통제사와 통우후, 거제부사, 순찰사 순으로 많으며 나머지는 수군 진장과 지방관들이다. 방문자들은 한산도 제승당이 바닷길로 육지와는 떨어져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통제영까지 왔더라도 뱃길을 이용해야 하므로 수군의 군선이나 사후선을 이용해야 했다. 일반인의 방문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이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했다.

물품은 지위가 높은 통제사나 관찰사가 많은 물품을 헌납했으며, 특히 〈표-1〉의 6번 순사(巡使) 정익하(鄭益河)는 제승당을 증진한 1740년 10월 1일 조 100석과 매답 11두락을 헌납하여 제승당을 지키는 재원으로 삼도록 했다. 특히 답 11두락은 매년 수확량이 나오는 곳으로 제승당 수호의 큰 재원이 되었다.

제승당을 방문한 이들은 통제사를 비롯한 대부분 통제영 관련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이다. 이들은 이순신의 승전지인 제승당을 방문하면서 통영총렬사도 방문했을 것이다. 『제승당 고품록』에 기록된 명단과 통영총렬사 『심원록』에 기록된 명단을 비교하면 119명 중 21명(17.64%)이 중복으로 방문했다. 중복 방문자 21명 중 통제사가 11명, 통우후 3명, 고성현령, 선산부사, 하동부사, 사천현감, 삼천권관, 표신선전관, 미기록 자 각 1명씩이다.

국왕은 통제사 부임 교서에 남쪽의 변방을 방어하면서 임진년의 전쟁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고 충무공을 생각하며 해방에 힘쓰라고 유시하였다. 또한, 삼도수군통제사는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유시도 했다.⁴³⁾ 대부분 통제사는 부임 시 통영총

43) 『承政院日記』, 英祖 15년 기미(1739) 7월 8일(임자) : 통제사(統制使) 조경(趙敬)에게 내린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서쪽 고을에서 부절(符節)을 차고 한 방면을 방어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는데, 남쪽 지방의 곤수(閩帥)에 제수하는 부월(斧鉞)을 주어 삼도(三道)를 통제하는 권한을 맡기노라. 이에 윤음을 내려 군사를 지휘하는 중임을 부탁한다. (중략) 이 남쪽 바다의 거진(巨鎭)을 돌아보건대, 실로 우리나라의 웅변(雄藩)으로 통제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하였기에 통제의 권한이 더

렬사에 참배했으며 아울러 제승당에도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제승당을 증건한 조정 통제사 이후 통제사는 101명이며 그중 제승당을 방문한 통제사는 29명으로 28.71%이다. 한적한 섬인 한산도 제승당에 통제영의 최고 수장인 통제사 중 약 30%가 방문한 장소였다는 사실은 이곳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표-3〉 월별 제승당 방문자 현황

시기	풍고기						풍화기						미기	계
월별	9	10	11	12	1	2	3	4	5	6	7	8		
횟수	8	6	1	0	4	4	30	26	6	1	6	15	12	119

〈표-3〉에서 제승당 방문자를 월별로 구분하면 3월이 25.21%이고 4월이 21.84%, 5월과 7월이 각 5.04%, 8월이 12.60%이다. 이들은 대부분 풍화기(음력 3월~8월)로 방문 비율이 77.72%를 차지한다. 제승당이 섬에 존재한 특성상 이동이 용이한 수조(水操)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 사례로 순찰사 신석우의 『해장집』과 송정악의 『서행록』을 들 수 있다. 수조 때가 아니더라도 제승당은 이순신의 전승지로서 수군 진장이나 수령들, 사대부들의 참배 장소로 자리매김했었다. 사대부들의 방문 시 많은 시편을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

육 높아 수천 리의 땅을 관할하고, 여러 도(道)에 비해 관방(關防)이 가장 강하여 창설한 지 거의 200년이 되었다. 바다 관문을 목구멍처럼 움켜쥐고 있어 형세가 마치 빗장을 걸어 놓은 것처럼 굳건하고 파도가 일본 지역과 접해 있어 위급 상황 때 순풍을 타고 기습할 우려가 있다. (중략) 오후라, 임진왜란의 남은 치욕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군사를 다스리는 계책을 소홀히 하겠는가. 충무공(忠武公)의 옛 공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힘써 적을 제압한 계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 경은 스스로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겠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부수찬 김광세(金光世)가 지어 올렸다.

44) 김용재, 「조선 후기 통영충렬사의 방문자와 향사 주체-충렬사 소장 『심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3

45) 『承政院日記』 1489책 (탈초본 81책) 正祖 5년 7월 14일 갑인

〈표-1〉의 방문자 명단 중 105번 순찰사(巡察使) 신석우(申錫愚, 1805~1865)는 그의 시문집인 『해장집(海藏集)』에 한산도를 방문한 기록을 남겼다.

한산도는 통제영 남쪽 바다 20리에 위치한 거제도의 속도이다. 이충무(李忠武)가 왜적을 크게 대파한 곳으로 제승당(制勝堂)이 있다. 순찰사(巡察使)가 오면 꼭 그를 세병관(洗兵館)에 모시고 다음 날 함께 한산도를 유람하였는데 유람과 더불어 조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4월 1일 정해일 아침 기상하여 만하루(挽河樓)에서 바라보니, 항구가 거울같이 평온하고,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물가의 집들이 버드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산과 누각은 붉은색으로 빛났다. 화려한 배들이 물가에 정박하여 마치 강남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이는 배가 바다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배에 올라타 보니 배는 삼층으로 되어 있었다. 위에는 붉은 난간이 청색 천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통제사와 함께 앉았다. 육지 병사들의 훈련이 끝난 후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좌우로 줄지어 우리의 배를 끌고 갔다. 왜적의 배가 나타나자, 배들이 서로 경보를 울리며 이리저리 이동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큰 배 한 척이 섬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이를 거북선이라 불렀다. 이 배는 다른 전함과 비슷했는데 뱃머리는 거북의 머리처럼 되어있어 신축 및 개폐가 가능했으며 때로는 입으로 연기를 뿜었다. 배의 상부는 판자로 덮여 있었고 그 위는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거기에 거북등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이는 충무공이 한산도에서 거북선으로 왜적을 격파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배는 천천히 움직여 만나질 만에 한산도에 도착했다. 제승당에 올라가 공연을 즐기고 무예를 구경하다가 해 질 무렵에야 돌아왔다.⁴⁶⁾

46) 申錫愚, 『海藏集』卷之十二, 記, 遊閑山島記 丙辰, 閑山島在統制營南二十里海中. 巨濟屬島. 李忠武大破倭賊于此. 有制勝堂. 巡察使入府. 府帥必館之於洗兵館. 翌日同遊閑山島. 蓋因宴遊而習操鍊也. 四月初一日丁亥. 朝起出挽河樓望見. 浦平如鏡. 山縵如畫. 水岸人家. 蔭映楊柳. 山郭樓臺. 流耀丹粉. 粧船畫舫. 列鱗汀洲. 杳然有

이처럼 신석우는 통제사 김한철(金翰喆)과 함께 한산도 근해에서 수조에 참여하고 제승당에 하선하여 무예와 공연을 즐겼다. 이때 신석우는 조 5석을 헌납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제승당을 방문하는 경우는 수조에 참여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서행록』에 기록된 경우도 마찬가지다.⁴⁷⁾ 아래는 『제승당 고품록』에 기록된 헌성물품의 목록이다.

〈표-4〉 제승당 헌성 물품 목록

번호	종류	단위	수량	비고
1	조(租)	석(石)	265	벼, 걸곡
2	전(錢)	량(兩)	126	1량(兩)=10전(錢)=100문(文)(상평통보 100개)
3	답(菑)	두락(斗落)	11	한 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
4	모(牟)	석(石)	66	보리
5	목(木)	필(匹)	29	무명
6	태(太)	석(石)	13	콩
7	미(米)	석(石)	12	쌀
8	목맥(木麥)	석(石)	9	메밀
9	감곽(甘藷)	단(丹)	7	미역
10	장(醬)	두(斗)	5	간장
11	마포(麻布)	필(匹)	3	삼베
12	유자(柚子)	동(同)	2	유자
13	잡어(雜魚)	속(束)	2	생선
14	청동(靑銅)	관(貫)	2	구리와 주석의 합금
15	훈조(熏造)	석(石)	1	메주
16	장지(壯紙)	속(束)	1	재질이 두껍고 단단한 종이
17	염(鹽)	석(石)	1	소금

江南風物. 又非樓船下海想. 少焉登船. 船高三層. 上說紅欄. 幕以青幔. 與統制使同坐. 行陸操罷. 小船數十. 左右擺列. 牽纜以行. 倭船現形. 諸船報警. 若近若遠. 有似戰鬪之狀. 有一大船從島嶼間出. 曰此龜船也. 其制大略如他戰艦而船頭作龜首. 縮伸闊張. 時吐烟霧. 上覆以板. 又罩以布而畫龜背紋. 蓋忠武閑島之捷. 以龜船破倭. 故象其成功也. 舟行遲重. 半日而到閑山下登制勝堂. 觀樂演武. 日暮始還.

47) 宋廷岳·宋志行, 2021, 앞의 책, 34쪽, 初三日. 晴. 最晚統使乘大艦, 多張旗幟, 滿載軍卒, 使小船數十隻, 擺列左右, 繫纜上船, 搖櫓挽引, 上船宛在中央, 順流徐行, 有若山岳移運. 鼓吹交奏, 萬舞方張, 翠黛紅裙, 隱映烟波, 大旆高牙, 動搖雲霞.

헌성 물품 중 조(租)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전(錢)으로 제승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이다. 그중 순찰사 정익하는 답 11두락을 헌납하여 당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게 하였다.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물품을 헌납했으며 특히 통제사와 순찰사가 많은 물품을 헌납했다. 제승당은 이순신이 기거하던 조선 수군의 지휘소로 중건했으므로 특별한 당파나 학문의 계열에 따라 방문한 것이 아니다.

〈표-5〉 고위 관직별 주요 물품 헌성 현황

번호	종류	단위	총수량	통제사	순찰사	우후	소계	%
1	조(租)	석(石)	265	93	121	9	223	84.15
2	전(錢)	량(兩)	126	39	30	11	80	63.49
3	답(畓)	두락(斗落)	11	0	11	0	11	100.00

〈표-5〉는 고위 관직인 통제사와 순찰사, 우후가 헌납한 물품 목록이다. 주요 물품 가운데 가장 많은 조(租)는 84.15%이며 전(錢)은 63.49%, 답(畓)은 100%이다. 다른 수군 진장이나 지방관보다 훨씬 많이 헌납한 것은 관력이 높을수록 임란의 전적지이자 충무공의 구국 혼이 서린 제승당에 깊은 관심이 있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제승당을 지령하는 재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통제영에서 두역포의 군창둔 3섬지기를 떼어 주어 제승당을 관리하도록 했다. 『통영지(統營誌)』에 의하면 제승당을 지키는 수방장 1원(員)에 조(租) 1섬이고 색리 1인(人)에 조 1섬과 전 4냥 5전이다.⁴⁸⁾ 결국 수방장을 영의 장교를 차출하여 방을 지키는 장으로 임명하여 통제영에서 급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재정이 해결된 듯하다.

48) 『統營誌』 규장각도서12184호, 守防將一員 租一石 色吏一人 錢四兩五錢 租一石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 18~19세기 한산도 제승당 관련 기록을 추적하였다. 본고는 제승당을 중건한 이후의 방문자를 분석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당시에 작성되고 전승되어 온 『제승당 고평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제승당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승당의 중건은 무신란의 이순신 후손인 이봉상의 순절과 이후에 영조 대 이순신 사적 현창의 일환으로 중건하였다. 조경은 무신란의 진압에 참여하였고 이후 이순신 후손의 현창 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통제사로 부임하여 한산도를 찾았을 때 “수백 년이 지나 주춧돌이 옮겨지고 우물과 부엌마저 메워졌건만 아득한 파도 너머 우거진 송백(松柏)속에 어부와 초등들은 아직도 손가락으로 제승당 옛터를 가르쳐 준다”고 했다. 이에 제승당을 중건하면서 무신란에 인연이 있는 조현명에게 부탁하여 기문을 작성했는데 남쪽의 백성들에게 충의심을 권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둘째, 통제영을 방문한 사대부들은 수조 훈련에 편승하여 제승당을 방문하고 물품을 헌납하였다. 그들은 통제영에 오면 제승당을 꼭 가봐야 할 유적 추모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승당에 가서 이순신을 회상하며 구국의 의지를 다지고 활을 쏘기도 하였다. 이순신과 인연이 있는 후손들의 방문도 이어져 선조들의 선양 작업의 일환으로도 자리매김하였다.

셋째, 제승당을 창건한 통제사 조경은 제승당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제승당 고평록』을 작성하고 방문자들에게 물품을

반도록 조치하였다. 『제승당 고평록』의 구성은 119명의 방문자 직위와 이름이 있으며, 방문 일자, 헌성품목이 적혀있다. 『제승당 고평록』에서 살펴본 제승당 방문자는 통제사와 수군 진장 또는 인근 고을의 지방관들이었다. 특히 방문자 중 통제사는 국왕의 복심이며 막강한 권한의 해방 총수로 통제사의 방문 자체는 그 지위와 격을 높여주는 행위였다. 헌성물품은 관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량과 질이 좋았으며 특히 통제사가 가장 많이 방문하여 헌성품을 헌납했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제승당은 조경이 중건한 이후 한 때 방영을 운영하다가 방영이 견내량으로 이동한 이후 통제영 수조를 행한 뒤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쉬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승당에서 이순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국왕뿐 아니라 국왕의 복심인 통제사와 수군 진장 및 지방관들까지 임진왜란의 승전을 기억하는 유적 추모 공간으로 삼았다. 다만 제향의 공간은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 1932년 충무 영당을 건립 이듬해 준공하면서 제향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조선 후기 한산도 제승당을 중건한 사유를 확인했으며 『제승당 고평록』을 분석하여 제승당의 운영과 관리를 확인하였다. 제승당을 방문한 사대부들의 시문을 통하여 성격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산도 제승당의 임진왜란 이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제승당 고평록』을 연구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제승당 고평록』의 방문객만으로 성격을 규명하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제승당 방문자들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임진왜란 이후의 제승당 성격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승당의 대외 방어사적인 면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승당이 수군 진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이어져 온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숙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사료

『承政院日記』

『李忠武公全書』

『朝鮮王朝實錄』

『懲毖錄』

『統營志』

(申錫愚), 『海藏集』

신수환 소장, 『制勝堂古風錄』

(申佐模), 『澹人集』

(趙顯命), 『歸鹿集』

통영충렬사소장, 『歲出內譯簿—忠烈祠永久保存會』, 1922~1931

2. 단행본

기타지마만지 지음, 김유성·이민웅 옮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김동철, 『엽서가 된 임진왜란』, 선인, 2022

덕수이씨정정공파종회, 2001, 『德水李氏貞靖公派譜(全)』

宋廷岳·宋志行, 『(국역)西行錄』, 재)한국호남진흥원, 2021

이민웅, 『이순신평전』, 책문, 2023,

—— 『임진왜란 해전사』, 주)청어람미디어, 2014

조성도 역 『壬辰狀草』, 연경문화사, 2010

재)불교문화재연구원, 『韓國의 寺址 현황보고서』, 2019상

제승당관리사무소, 『制勝堂誌』, 1994

통영문화원, 『柳洋八仙詩集』, 1995

통영시사편찬위원회, 『統營市誌』, 2018

3. 논문

김시우,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화첩』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3

김용재, 「조선후기 통영총렬사의 방문자와 향사 주체-총렬사 소장 『심원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3

김일룡, 「이순신의 한산도 제승당 고찰」,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2023

김현구, 「조선후기 統制營의 公廨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부산경남사학회, 2012

박소희, 「남계서원의 내력과 인적 네트워크— 남계서원 소장 『裒寶錄』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75, 대동한문학회, 2023

송기중, 「17세기 수군방어체제의 개편」, 『朝鮮時代史學報』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 「朝鮮後期 水軍制度의 運營과 變化」, 忠南大學校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6

신운호, 「壬辰倭亂 시기 三道水軍 연구」, 경상국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윤 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창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 「숙종대 顯忠祠 건립의 배경과 정치적 함의-명 멸망 공인과再造之恩의 재정립-」, 『진단학보』 139, 진단학회, 2022

이민웅, 「한산대첩의 주요 경과와 역사적 의의」,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이순신 연구소, 2016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수군」,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원빈, 「난중일기」를 통해 본 한산도와 이순신의 건강」, 『이순신연구논총』 22,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4
- 정현창,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에 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37,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22
- 제장명, 「이순신의 수군 전략과 한산대첩」, 『군사』 6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6
-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수군정책과 이순신의 수군 운용」, 『이순신연구논총』 31, 순천향대이순신연구소, 2019
- 최대윤, 「임진왜란 전후 거제 수군진의 재편과 방어체제의 정비」, 경상국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하동률, 「『嶺營日記』에 나타난 조선후기 관찰사의 생활상」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Jeseungdang in Hansando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 Centered on 『Jeseungdang Gopungrok (制勝堂 古風錄)』 –

Kim, Yong-Jae

This research investigates documents associated with Jeseungdang on Hansando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study examines the official records of the Tongjesa Jo Gyeong (趙傲), and other relevant documents to determine the reas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Jeseungdang. In addition, this research characterizes the facil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lated records, and the 『Jeseungdang Gopungrok』 is analyzed to assess the visitors and the offerings they mad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nstruction of Jeseungdang was part of an initiative to honor Admiral Yi Sun-sin (李舜臣)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subsequent to the martyrdom of his descendant, Yi Bong-sang (李鳳祥), in the Musinran(戊申亂). Cho Kyung of the Tongjesa and visited Hansando and rebuilt the Jeseungdang, asking Cho Hyun-myung (趙顯命), who was associated with Musinran, to write a memo, and said that the purpose was to encourage loyalty to the people in the south.

Second, visitors to the Tongjeyeong would frequently visit Jeseungdang and donate items while participating in naval training. They recognized Jeseungdang as an essential memorial space

dedicated to Admiral Yi Sun-sin, where they would reflect on his legacy, reaffirm their loyalty and dedication to national defense, and sometimes practice archery.

Lastly, the foundation of Jeseungdang of the Tongjesa Jo Gyeong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Gopungrok』, a document designed for the site's upkeep and management, as well as regulating the acceptance of tributes from visitors. According to the 『Jeseungdang Gopungrok』, these visitors included the Tongjesa, naval commanders, or local officials from nearby districts. These individuals honored Admiral Yi Sun-sin and used Jeseungdang as a space for commemoration and tribute.

Keywords: Hansando(閑山島), Jeseungdang(制勝堂), Gopungrok(古風錄), Musinran(戊申亂), Cho kyung(趙倣)

